



## 공학한림원 발표 대한민국 100대 기술 주역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8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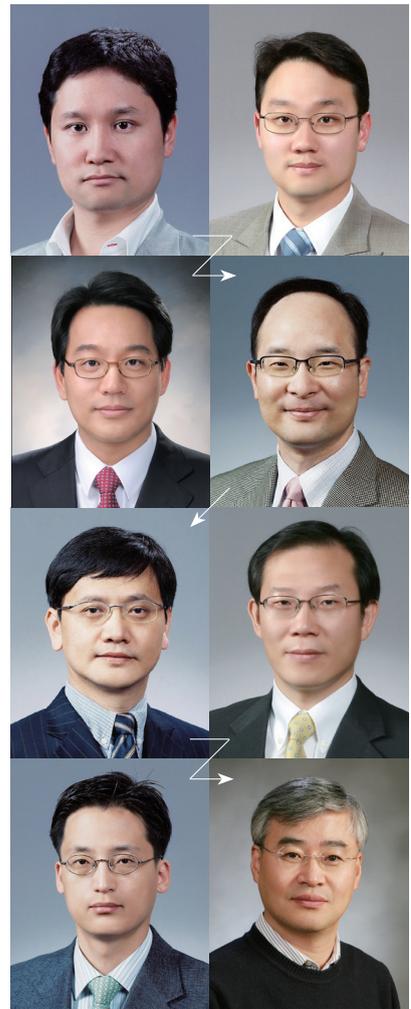
KAIST는 전체(8명)와 같아. 삼성전자, LG전자는 각 7명.

한국공학한림원이 2013년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100대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 개발 주역' 217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17명으로 학문기관 중 가장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재가 선정된 삼성 그룹(18명) 다음으로 많은 수가 선정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발 주역 총 217명 중 56명이 대학 교수였고, 이중 서울대 교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17명), KAIST(8명), 연세대(7명), 한양대(5명), 고려대(4명), POSTECH(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특히 전기·정보공학부가 8명(권성훈, 김재하, 윤성로, 윤용태, 이병호, 이종호, 최성현, 홍성수 교수 - 사진 좌상부터 화살표 방향)이 선정되어 가장 많았다. 이는 삼성전자 7명, LG전자 7명보다 많으며, KAIST 전체(8명)와 같은 숫자로, 학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미래 대표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유전자 리딩 합성기술, 친환경 초절전형 반도체 회로기술, 빅데이터 활용 기술,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 감성형·무안경 3D 및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기술, 초미세 대용량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 Super WiFi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이다. 공학한림원의 미래기술 개발 주역 선정은 미래 100대 기술을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시작하여 17개월간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산학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 대표 기술 100개과 217인의 개발 주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 Contents

- 01 학부 소식   05 신입교수 인터뷰   06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Baby in car' 팀
- 08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10 전공하나   12 장학금 수여식 / 시상식
- 13 해동 다독자상 인터뷰   14 외국인 학생 인터뷰   15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안내

### Contact Us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el 02-880-7241  
 Fax 02-871-5974  
<http://ece.snu.ac.kr>

## 이병호, 최성현 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 선정



이병호(좌), 최성현(우) 교수

이병호, 최성현 교수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었다. 최상위 0.1% 내에 있는 회원만이 새로 선정되는 IEEE

Fellow 자격은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인 학회의 Senior Member 중 탁월한 자질과 연구개발 업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한다. 이병호 교수는 회절광학, 3D 디스플레이, 나노광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여, 2002년에 국제광공학회(SPIE)의 석학회원, 2005년에 미국광학회(OSA)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으로 전공관련 세 개의 학회 모두에서 석학

회원이 되었으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2009. 9.), 서울대 학술연구상(2013. 11.) 등을 수상하였다. 최성현 교수는 무선/이동 네트워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선랜(WiFi) 기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이례적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석학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성현 교수는 KICS Dr. Irwin Jacobs 상(2013.11), 젊은과학자상(2008. 2.), IEEE/IEEE IT 젊은과학기술자상(2007. 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심규석 교수 국제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Fellow) 선정

심규석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ACM 석학회원에 선임된 심규석 교수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질의처리 및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공헌으로 국제 컴퓨터 학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ACM은 194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심규석 교수

컴퓨터 분야의 학술 조직으로, 전세계 약 1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석학회원은 컴퓨팅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1% 미만의 석학급 회원들

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자격이다. 심 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구글 스칼라에 의하면 심 교수가 저술한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적으로는 VLDB 저널과 IEEE TKDE 저널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으며, WWW 2014 컨퍼런스와 ICDE 2015 컨퍼런스에서는 연구논문 트랙의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 이종호, 김성재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1차 과제 선정



이종호(좌), 김성재(우) 교수

삼성엔 국내외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삼성미래기

술육성사업' 1차 지원 과제로 총 27건을 선정하여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창의과제 등 3대 분야에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종호 교수는 '홍분/억제 기능을 포함하는 신경모방소자 및 이를 이용한 뉴로모픽 프로세서 연구' 과제가 ICT 분야 대표과제로, 김성재 교수는 '나노전기수력학을 이용한 무전

원 해수담수화 장치'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종호 교수는 인텔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3D 반도체 공정기술' 보다 앞서 동일한 기술을 개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성재 교수는 기존의 담수화 개념을 이용하지만 외부 전력이 필요 없는 신개념 담수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정 과제 27건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미래기술육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 생체모방 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 개소



서울대는 2013년 11월 26일 생체모방로봇 국방특화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생체모방로봇 국방특화연구센터는 새나 곤충을 닮은 로봇과 같이 각종 생물체를 닮은 로봇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 서울대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 아래 다른 9개 협력 연구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센터

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곳에서 향후 9년 간 156억의 연구비를 들여 국방연구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식판단연구, 감지센서연구, 정보전달연구, 구조/메커니즘연구, 복합거동제어연구 등 전기, 컴퓨터, 기계, 항공, 화공, 생물학, 의학 등 여러 전공에서 생체모방로봇에 관심있는 총 37명의 교수와 172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게 된다.

국방생체모방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장을 맡은 전기·정보공학부 조동일 교수는 “미래 전장에서는 무인로봇이 큰 역할을 하고 감시정찰이 중요해지지만 선진국은 일반적 기술조차도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기술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스텔스기반의 복합거동이 가능한 초소형 생체모방자율로봇을 만들어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향후 민간분야로도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 홍용택 교수, 인하대 양희창 교수 공동 연구팀 잉크젯 프린팅 기반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향상 기술 개발



홍용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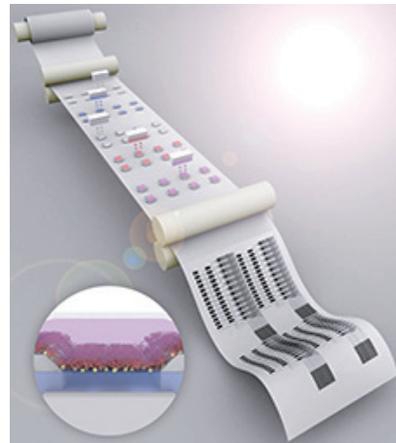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 정승준 박사, 인하대 양희창 교수, 장미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2013년 10월 25일 잉크젯 프린팅 기반의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종이에 그림을 찍어내듯 연속공정 상에서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어 트랜지스터 모든 층을 인쇄공정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유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인쇄전자 응용 분야에 매우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게이트 절연막과 소스/드레인 전극에 동시에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말단기능화 처리된 폴리스타렌 물질을 이용했다. 그 결과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한 번의 표면 처리를 통해 두 계면의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유기 트랜지스터 회로를 탄생시켰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2013년 9월 14일자

Frontispiece Highlight 논문으로 게재됨과 동시에 학술지 전문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전체 저널 내 게재된 유기 전자 분야 연구 중 핫토픽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향후 본 기술을 글로벌프린터어 소프트웨어 일렉트로닉스 사업단의 유연 신축성 전자회로 시스템 구현과 섬유 기반의 유연 디스플레이 기술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유기 트랜지스터 회로 제작 개념도 및 트랜지스터 단면 개념도

### 이재홍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정



이재홍 교수

이재홍 교수가 2014년 1월 1일자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석학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모임으로, 정회원 500명을 정수로 하여 정책학, 이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등 각 분야별로 소수인원의 석학을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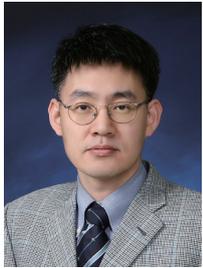
### 김태환 교수 IEEE 최우수 논문상 수상



김태환 교수

김태환 교수가 IEEE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6일 독일 제26회 IEEE Annual System-on-Chip Conference(SOCC)에서 이병현 학생(2012년 박사 졸업, 현 삼성전자 System LSI 근무)이 발표한 'High-level TSV Resource Sharing and Optimization for TSV Based 3D IC Designs'이 최우수 논문상에 선정되었다.

### 김수환 교수 신양공학학술상 수상



김수환 교수

김수환 교수가 2013년 12월 11일 12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린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에서 신양공학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직 교수 중 부교수 및 정교수로 승진하는 49세 미만의 젊은 교수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신양공학학술상은 올해 수상자로 재료공학부 박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김수환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남경필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김병수 교수,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신양공학연구기금도 함께 전달됐다.

### 이병호 교수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이병호 교수

이병호 교수가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제정했다. 이병호 교수는 나노광학, 광센서, 3D 디스플레이 등의 응용광학 분야에서 320여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과 초청논문 100여 편을 포함하여 570여 편의 국제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였다. 토플슨 로이터스 기준 H-index는 35이며, 최근 'Physics Today'에 표지 논문을 쓰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 BK21플러스 사업 최종 선정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BK21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8월 16일 「BK21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전국 64개 대학 총 195개 사업단 및 280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BK21 플러스사업은 총 예산 1조7682억원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 8,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수 동정

박종근 교수	
이상욱 교수	개교기념 67주년 포상 재직 30년
황기웅 교수	
정현교 교수	개교기념 67주년 포상 재직 20년
조동일 교수	
문승일 교수	제4기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위촉

이광복 교수	BK21플러스 창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단장 겸보 전국 BK21플러스 정보기술사업단장협의회 회장
홍용택 교수	재단법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겸직
김남수 교수	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소장 겸보
조남익 교수	연구소위원회 위원 임명
서승우 교수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 정교민 교수



연구분야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Machine intelligence Lab.  
<http://milab.snu.ac.kr>

안녕하세요. 전기·정보공학부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생각해 보면 2004년 여름 유학을 떠나며 서울대학교를 떠난지 근 10년 만에 모교에 교수로 돌아오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학생 시절, 녹두에서의 자취생활 (얼마 전 응답하라 1994란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96학번인 제 대학생살이 생각나더군요), 동아리 활동, 2학년 여름 친구들과 떠난 한달간의 중국 배낭 여행, 그 준비를 위한 아르바이트와 중국어 공부 등 의욕적으로 생활하고자 했던 여러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돌아보면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했고, 그를 통한 성취감과 때론 좌절이 삶의 큰 에너지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3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IMO)란 대회를 알게 되어,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그 공부에 전념해서 95년 IMO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일, 대학교 3학년때 자전거 타는 것을 남보다 늦게 배운 후 그해 여름방학에 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5일간 전국 횡단 자전거 여행을 떠난 일 (국토를 가로지른 후 그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MIT에서 대학원 유학 시절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한번 겨뤄보자는 마음에 집중했던 논문 연구들과 그 결과들은 지금도 떠올리면 큰 성취감을

주는 삶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하는 분야는 기계학습과 이를 활용한 복잡계망 등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추천 시스템 및 사용자 활용 예측 시스템 개발, SNS 상에서의 루머 등 거짓 정보 분류 시스템 개발, 그래피컬 확률 모델에서의 추론 시스템 개발등의 연구를 연구실 학생들, 또 Microsoft Reserach, MIT 등 세계적 수준의 다른 기관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전기·정보공학부의 신임 교수로서, 수업과 연구 생활,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머신 러닝과 정보 공학 연구, 대학 생활, 또 그 이후에 생활에 대한 편안한 조언자와 선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은 사회적 역할과 의무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고 많은 시간적 여유와 젊음이 있는 매혹적인 시간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의 학생 여러분들 모두,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 중인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 멋진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3~1996	서울과학고등학교
1996~2003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
2004~2009	MIT 수학 박사
2009.06~2013.08	카이스트 전산학과 조교수
2013.09~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1995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2004~2008 삼성장학회 2기 장학생  
2006 Bll labs, 2007 IBM Watson, 2008 Microsoft Research 연구 인턴쉽  
2012~2015 한국 연구재단 우수 신진 과제 선정



##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Baby in car' 팀 을 만나다

인터뷰 강권정

“최우수상은 서울대 'Baby in car' 팀입니다!”

지난 달 11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제1회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수상팀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서울대 전기정보공

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첫 출전팀인 Baby in car 팀이 종합 2위의 쾌거를 올리며 준비 과정부터 대회 일정까지 길었던 대장정의 끝을 알리는 목소리였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주관하는 경기다. 우리 정부의 주최로는 처음 열린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라는 점에서 Baby in car 팀의 참가 의의는 더욱 남달랐다.

첫 대회인만큼 전국에서 막강한 실력의 10개 팀이 출전해 사흘간 각축전을 벌였다. 경기 방식은 예선과 본선의 주행시간을 합산해 가장 빠른 성적을 기록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각 팀의 무인차량이 ▲정지/직진 신호등 인식, ▲방향지시등 인식, ▲낙하물 인식, ▲표지판 인식, ▲보행자 인식, ▲복합 장애물 인식 등 총 10개 미션을 거치는 동안 주행시간이 기록된다.

Baby in car 팀은 대회 전날까지만 해도 우승을 조심스레 점칠만큼 좋은 기록을 냈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져 나왔다. 차량이 정지신호등을 놓치고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해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

결국 예선은 아쉽게 4위에 그쳤고, 알고리즘을 급하게 손봐야 했다. 다행히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출한 본선에서는 월등한 성적으로 1위를 거뒀다.

비록 1위를 놓쳤지만, 2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부터 대회를 준비해온 땀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큰 수확으로 실험실에서 개발해온 무인 자동차용 알고리즘들을 실제 차량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Baby in car 팀의 이수목 학생(석사과정)은 “대회에 참가하며 실제 차량 실험을 통해 무인자동차 제어를 위한 실질적 연구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컸다”며, “근 3개월간 합숙하면서 연구실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진 것도 값진 경험”이라고 밝혔다.

지도교수를 맡은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는 “비록 최우수상에 머물러 아쉬움이 크지만 첫 참가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기술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서승우 교수



**2013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컴퓨터 네트워크 및 보안 연구실(CNSLab.)에서는 지도 교수님이신 서승우 교수님의 지도하에 로봇 플랫폼, 자체 제작 차량 플랫폼, 실제 차량 플랫폼에 기반한 무인 자동차 관련 기술을 수년간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에는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관하고 직접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관련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Baby In Car 팀에 대한 소개**

박사과정 연구원 4명, 석사과정 연구원 6명 등 총 10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팀은 주행 환경 인식 알고리즘 개발 팀과 자율주행 경로 생성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팀 등 두 개의 세부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회 준비에 있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스펙과 수량 및 장착 위치가 제한된 센서들을 이용



하여 차량을 주행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환경 인식 파트로부터 생성되는 인식 정보와 자율주행 경로 생성 및 제어 파트로부터 생성되는 차량 상태 정보를 융합하는 정보 융합 기술 개발에 특히 주력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혹은 난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회 미션 수행을 위해 준비한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보다 자체의 흔들림 등 이론에서 고려되지 않는 상황들과 실험 장비들의 고장, 폭우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난감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선날 비로부터 차 안의 전자 장치들을 보호하고 바람의 영향도 줄이

기 위해 차량의 모든 창문을 닫고 주행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올라가자 차량 자체의 도어락 기능이 작동하여 문이 잠겨버렸고, 스페어키가 없어서 중간에 발생한 문제를 손보지 못한 채로 계속 주행해야 했습니다. 운 좋게 완주는 했지만 이로 인한 감점이 너무나 컸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항상 차에 탄 채로 실험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 첫 참가팀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 (+ 차기 대회 준비 계획)**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차기 대회가 있다면, 이번 대회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들을 거름삼아 반드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2013년 12월 19일, 전기·정보공학부  
구성원들이 송파구 거여동에 모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 교수, 학생, 직원  
이 힘을 모아 연탄을 한 장 한 장, 손  
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을  
만들었다.

글 김종인(학생회장)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하계, 동계로 나누어 봉사활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동계로는 벌써 세 번째이고, 전체적으로는 제 5회 전기·정보공학부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동계에는 송파구 거여2동에 사시는 주민들께 연탄을 지급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여2동에 사시는 독거노인 주민들께 연탄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 및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등 합하여 총 50명이 적십자 단체 분들의 도움과 김수환 교수님의 인솔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2013년 12월 19일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사실 아침부터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조금은 생기는 행사였다. 눈도 조금씩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혹여 다른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참석을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봉사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이 제 시간에 와서 적십자 단체에서 준비해주는 목장갑, 고무장갑, 우비, 마스크 등을 챙겨 입는 것을 보고 저절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첫 번째 집에 도착했다. 연탄이 집 밖에 상당수 쌓여있고 이를 집 주인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시 옮겨 쌓아야 했다. 사실 처음에는 연탄을 먼 거리에서부터 나르는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하고 왔는데 겨우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에 쌓인 연탄을 여러 사람이 주고 받는 형식으로 쌓는다고 하니 일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연탄을 전달하는 맨 앞과 연탄을 쌓는 맨 뒤는 가장 힘들다고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서 연탄을 쌓는 것을 맡았다. 하지만 약 50개쯤 쌓았을 때, 자신감이 너무 넘쳤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좁은 구석에 구부정한 자세로 연탄을 하나씩 쌓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을 유발했고 특

히나 허리가 매우 아팠다. 하지만, 처음에 나서기도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오는 연탄 때문에 속도를 유지한 채 결국 끝까지 쌓게 되었다. 그렇게 첫 집에서의 연탄 쌓기가 끝이 나고 실 틈도 없이 두 번째 집으로 향해야 했다. 두 번째 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탄 쌓기가 진행되었는데 이 때 매우 아찔한 일이 있었다. 쌓던 연탄이 쓰러져 무너질 뻔 한 것이다. 애써 온 몸으로 넘어가는 연탄을 막았는데 다행히도 가장 위에 있던 연탄 중 하나가 떨어졌고 그마저도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탄이 무너져서 깨지게 되면 연탄이 아까워서도 문제고 그걸 청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쌓던 연탄의 중심을 찾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다행히 내가 연탄이 쓰러지는 걸 막고 있는 사이 다른 참가자 분들께서 중심을 찾아주신 덕분에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집에서 아찔한 연탄 쌓기가 끝나고 다른 집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분들 모두 모여 마지막 집에 도착했다. 마지막 집은 연탄을 전달하는 거리가 꽤 멀어서 봉사활동 참여자 전원이 힘을 합쳐야 했다. 하지만 전달하는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집에서 노하우가 생긴 학생들은 매우 순탄하게 일을 진행했고 결국, 아무 사고 없이 마지막 집에서의 봉사활동도 마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학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사러 가는 도중에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돕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애초에 관심도 안 가지고 여러 핑계로 마다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봉사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같은 과의 선배, 동기, 후배들이 꼭 한 번씩 참여해보기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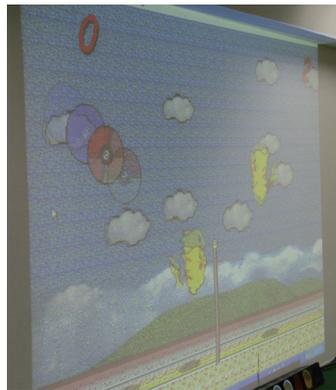




## 전기 · 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2013년 9월 27~28일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후원: LG 디스플레이 / LG 전자





①② 반대향 운동회

R·롤루·랄라·C, 네 반이 다양한 종목으로 대결했다. 롤루반 우승.

③ 피카츄 배구 게임대회

빠까! 빠까!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탁월한 종목 선정.

④ 팔씨름 대회

평소에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겨뤘다. 여성부 리그도 함께 열렸다.

⑤ Lab. 설명회

수많은 연구실 중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설명이 기다리고 있다.

⑥ LG Display 강연

미래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에 대한 LG 디스플레이 전명철 상무님의 강연.

⑦ 교수님과 대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⑧ 장기자랑

인기상을 수상한 '배레옹팝'의 무대. 점핑! 점핑!



##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알프리 장학금 수여식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및 알프리 장학금 수여식이 2013년 12월 5일 학부장실에서 열렸다. 고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선발된 학생은 총 4명으로,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1명, 알프리 장학금 3명이다.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은 전기공학과 76학번 동문인 고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가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이고, 알프리 장학금은 전기동문회 동문 중 회사를 운영하는 동문을 주축으로 만든 알프리 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두 장학금 모두 학기별 학업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지원해주며, 선발 인원 및 지원 시기는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고광일 대표(우측 3번째)

## 봉사상, 다독상, 축구대회 시상식

2013년 12월 23일,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실에서 봉사상, 다독상, 축구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봉사상은 지난 1년간 바쁜 시간을 쪼개 학부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신입생 도우미, 전공하나 준비팀, 학부 홍보영상 출연진 등 총 13명이었다. 학부 홍보 영상에 출연한 학부 11학번 장한별 학생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학부 과정에선 접할 수 없었던 연구소 내부 모습이나 연구실 생활 등에 대해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촬영하던 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촬영하는 동안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없어서 힘들었다"며 촬영에 임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전기·정보공학부 축구대회는 학부에서 진행하는 개별 리그로 학부 단위에서 진행하는 리그로써는 큰 규모의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총 18개팀이 참가하여 예선부터 결승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었다. 우승은 전기·정보공학부 축구팀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FC 롤루'(대표 고진규)팀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FC 봉봉'(대표 민태준)팀에게 돌아갔다. 축구대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지호 학생은 결승전 이후 회식 자리에서 "올해도 많은 팀이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하면 좋겠다"며 대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해동 다독자상은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1년 간 해동학술정보실에서 대출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1등을 한 김수덕 학생은 1년 간 76권의 책을 빌렸다. 해동학술정보실은 올해부터 독서 후기 게시판을 신설하여 대출 권수가 아닌 독서 후기를 바탕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 해동 다독자상 인터뷰

학부09 김수덕

### 수상 소감

학부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다독자상까지 만들어 수여해주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어찌다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받게 되었네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올해는 독서를 그다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했기에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깊이 읽는 학우들이 훨씬 많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다독자상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니 조금은 부끄럽네요.

비록 다독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하였긴 하지만 책을 읽을 때에 ‘몇 권을 읽었다.’라는 양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권의 책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고 치열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의 본질은 결국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 사이에서 우리 삶을 바꿔놓고 방향을 제시할 무언가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자신 속에서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모든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서로 인해 삶이 변화됨을 느끼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에게 독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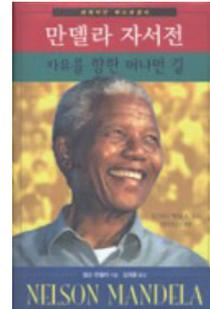
우리가 살면서 막연하지만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좋은 순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 삶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기질적인 특성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작가들-예를 들면, 실존주의 계열의 소설들-에서처럼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고찰할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독서란 미래를 향해 내다볼 때에 생기는 이러한 필연적인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을 되찾게 하는 도구입니다. 조금은 말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임처럼 누구나 극도로 몰입하여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에 맞는 책을 찾아 독서를 하는 순간이 바로 게임과 같은 그 순간이 되기에 제가 끊임없이 책을 찾고 읽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하고 싶은 도서와 이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를 존경하든 아니든, 그의 사상을 공유하든 아니든, 20세기를 가장 치열하게 살았으며 20세기에서 가장 기억될만한 인물로 꼽히곤 하는 만델라의 자서전은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던 만델라였던 만큼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그의 긴 생애를 마치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현재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가치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두꺼운 책이지만 재미있게 빨리 읽히는 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상자 추천 도서



김수덕

〈만델라 자서전〉  
넬슨 만델라 저  
출판사 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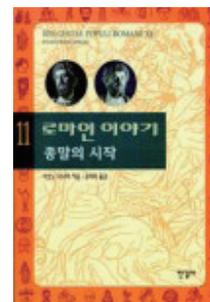
최병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김정태 저  
출판사 갤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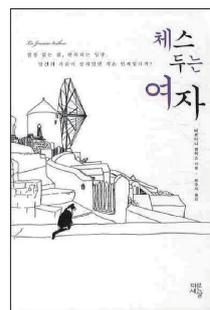
이재현

〈스님의 주례사〉  
법륜 저  
출판사 휴



정석원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저  
김석희 역  
출판사 한길사



박상준

〈체스 두는 여자〉  
베르티나 헨릭스 저  
이수지 역  
출판사 다른세상

## 외국인 학생 인터뷰

매번 교환 학생을 다녀온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의 수기를 실어왔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학부로 온 외국인 학생을 만나보았다. 유기반도체 연구실(지도교수 이창희)에 있는 Felix Penningsfeld에게 이곳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 김준석



Felix Penningsfeld

### Please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Felix Penningsfeld. I am a graduate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September 2012 as part of the Samsung Global Scholarship programme. In the time I spent in Korea I learned a lot about this amazing country and its people. There is so much more to discover in Korea than Kimchi and Soju. Through my engagement in sports I had the chance to cycle from Seoul to Busan last summer and also take part in various triathlon and running races across the country. Along the way I met many inspiring Koreans and I am very thank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live in this amazing country.

### What kind of researches are you conducting in the laboratory?

With the worldwide growing demand of energy, new, clean and efficient ways of energy generation are needed. One of the possible technologies to help solve this challenge is the Organic Solar Cell. So I am very delighted to conduct research on Organic Solar Cells at the Organic Semiconductor Laboratory with Professor Changhee Lee. This is a great follow up to my previous studies on nuclear fusion at the Max-Planck-Institut in Germany.

### Pros and Cons that you experienced during school life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 great school to study at. From my

experience the university is focused on research, which means you spent most of your time in the laboratory instead of a classroom. This hand-on approach allows you to experiment more and think outside the box to approach the problems you face in your research. This occasionally has impact on classes, as professors are of course very busy and at times exam dates are moved on short notice, which can be annoying. But overall it is justified that this school is counted as one of Korea's top universities.

In the beginning I was worried about complications in my daily life due to my beginner level Korean language skills. But with the help of the staff at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ffice and of course my lab mates this is no concern at all. I am very thankful to all the people who often have to answer my occasionally weird questions.

### Any other words you want to say.

Coming to Korea was one of the best choices of my life so far. I appreciate this opportunity a lot and am very thankful to all my friends and family who are supporting me both in Korea and Germany. 2014 is going to be a very exciting and challenging year both at university and sports for me. But challenges are what make life interesting and overcoming them is what makes life meaningful!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input type="checkbox"/>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input type="checkbox"/> 기 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직장)			이메일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장	직장명	부서	직위

## 약정정보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 기부		<input type="checkbox"/> 월 정액 기부	
	일금	원 (₩ )	매월 [ ]원씩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년 월 부터 매월 정기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 년 월 ( )회 분납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SNU Challenge 모금사업 [ ※ 뒷면의 핵심모금사업 참조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용도 지정 (지원기관 : 대학, 학과, 연구소 등) [ <b>전기·정보공학부</b> ]			
	<input type="radio"/> 위임	<input type="radio"/> 학술	<input type="radio"/> 장학	<input type="radio"/> 연구
	<input type="radio"/> 기금교수	<input type="radio"/> 대학문화	<input type="radio"/> 도서	<input type="radio"/> 기타 [ ]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원금보존)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연락주시면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 필수확인사항

정보동의 개인정보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구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Tel: 02-880-8004, 02-871-8146 Fax: 02-872-4149

E-mail: gift@snu.or.kr, http://www.snu.or.kr

주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연구공원 본관2층

SNU ECE LIFE No.10

발행인 학부장 이광복 발행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편집인 조도희 홍보장학생 학부07 강권정 학부07 김준석

# SNU ECE LIFE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No.10 / 2014년 2월

